

일본어 음성교육상의 몇 가지 문제점

김 속 자

1. 들어가기

한국어와 일본어는 그 용사구조가 유사하며, 문장 내에 한자를 섞어 쓰고 있는 점에서 한국인에게는 학습이 비교적 용이한 외국어라고 알려져 있다. 이 글은 현대일본어와 현대국어와의 음운체계의 차이에서 오는 난이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효과적인 음성교육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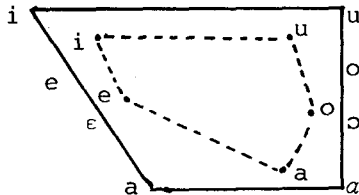
외국어의 습득과정에 있어서 문법구조, 어휘, 의미 등의 분야 중에서도 특히 외국어의 음성을 정확하게 학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습대상언어의 음성체계의 상이점에 따라서 그 난이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각 언어들은 제각기 독자적인 음운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 체계 내의 모든 요소들이 상호관련을 맺고 있으며, 완전히 동일한 음성체계를 지닌 두 개의 언어나 방언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현대언어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언어습득과정에 있어서 첫단계는 정확한 음성학습이라고 본다. 일본어의 올바른 습득을 위하여 학습자는 모국어인 한국어의 음성체계와 이에 대응하는 일본어 음성들의 음가를 정확히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고, 다음으로는 자신이 듣고 판별한 소리를 자기의 발음기관을 통해 직접 발음할 수 있도록 훈련을 쌓아야 하겠다. 더 나아가서 학습자는 발음된

말소리를 음성기호로 전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음성학적 훈련을 거쳐,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와 대학, 기타 전문기관에 있어서의 일반 어 교육에서 음성교육의 학습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학습자는 종종, 한국어보다 그 음운 체계가 간단하다고(모음의 수라든가)하는 판단에서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철저한 발음교육을 성공적으로 습득하지 못한 채로 어휘 문법구조 의미에 몰두하게 되는 일이 많다. 학습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문장의 어순, 격, 한자음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발음과 청취에 대한 훈련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 모음음소 학습상의 문제점

공통어라고도 불리는 동경방언을 표준으로 할 때, 모음음소는 /a/, /i/, /u/, /e/, /o/가 있으며, 기본모음표와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모음의 음성학적 소리값은;

a: 평순저모음으로 기본모음 4번과 5번의 중간음이다.

i: 평순전설모음으로 기본모음 1번에 가까우나 한국어의 /이/보다 낮다.

u: 평순후설고모음. 이것은 중설모음에 가깝고 입술이 상하로 좁혀진다.

e: 평순전설중모음으로서 기본모음 2번과 3번의 중간음이다. 한국어의 /에/와 /애/의 중간위치이다.

o: 원순후설중모음으로 기본모음 7번보다 다소 낮다.

일본어의 모음 중 o만이 원순모음이며, 그밖의 모음들은 원순성을 수반하지 않는다. 특히 w는 기본모음 8번과 u보다 혀의 위치가 낮고, 입술의 둥그림이 없다. 정밀표기로는 /s-/, /c-/, /z-/의 환경에서 ü로, 그 이외의 음성적 환경에서 w로 나타난다. 한국인 학습자는 이를 모국어의 u와 혼동하는 일이 많은데, 음성교육에 있어서 대부분의 교과서가 u로 발음표기를 하고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1) ue (ウエ) → ue
 utsi (ウチ) → utsi
 uta (ウタ) → uta 또는 uda

로 발음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실제 발음지도에 있어서 원순과 평순의 차이를 기술하고 u로 표기하는 발음기호를 w로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3. 자음음소 학습상의 문제점

일본어의 자음은 다음과 같다.

- p: 무성양순 파열음 (ㄱ⁰ 행음)
- b: 유성양순 파열음 (ㄱ^h 행음)
- t: 무성치경 파열음 (ㄷ, ㄸ, ㅌ 행음)
- d: 유성치경 파열음 (ㄷ^h, ㄸ^h, ㅌ^h 행음)
- k: 무성연구 깨파열음 (ㄱ⁰ 행음)
- g: 유성연구 깨파열음 (ㄱ^h 행음)

- m: 유성양순 비음 (ㄹ행음)
 n: 유성치경비음 (ㄴ행음)
 ɲ: 치경경구 개비음 (ㄱ, ㄱ^ㅅ, ㄱ^ㅇ, ㄴ^ㅇ 음)
 ŋ: 유성구 개비음 (어말음)
 f: 무성양순 마찰음 (ㄲ음)
 s: 무성치마찰음 (ㅅ, ㅆ, ㅈ, ㅊ의 자음)
 z: 유성치마찰음 (ㅅ^ㅇ, ㅆ^ㅇ, ㅈ^ㅇ, ㅊ^ㅇ의 자음)
 ʃ: 무성치경마찰음 (ㅅ, ㅆ, ㅈ, ㅊ음)
 ʒ: 유성치경마찰음 (ㅅ^ㅇ, ㅆ^ㅇ, ㅈ^ㅇ, ㅊ^ㅇ음)
 ɸ: 무성연구 개마찰음 (ㅌ, ㅌ^ㅅ, ㅌ^ㅇ, ㅌ^ㅇ음)
 h: 무성성문 마찰음 (ㄱ, ㅋ, ㆁ 음)
 ts: 무성치파찰음 (ㅈ음)
 dz: 유성치파찰음 (ㅈ^ㅇ, ㅆ^ㅇ, ㅊ^ㅇ, ㅊ^ㅇ의 어두음)
 tʃ: 무성치경파찰음 (ㅈ, ㅆ, ㅈ, ㅊ 음)
 dʒ: 유성치경파찰음 (어두의 ㅈ^ㅇ, ㅆ^ㅇ, ㅈ^ㅇ, ㅊ^ㅇ, ㅈ^ㅇ, ㅆ^ㅇ, ㅈ^ㅇ, ㅊ^ㅇ음)
 ɸ: 유성치경란음 (ㄹ행음)

들이다. 일본어의 자음음소는 /k,g/, /n/, /s,z/, /t,d/, /c/, /n/, /h/, /b,p/, /m/, /r/의 14개와 반모음음소 /j,w/와 특수음소 (mora 음소) /N/, /Q/를 합쳐서 18개이며 발음교육에 있어서 자음음소를 둘러싼 문제점으로 다음의 몇가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3.1. 무성음과 유성음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일본어의 파열음의 유성과 무성의 판별이 상당히 어려우며, 이들이 어두와 어중으로 그 음성적 환경을 달리 할 경우

이를 혼동하기 쉽다. 특히 한국어의 /p/, /t/, /k/의 음들이 유기와 무기의 대립을 이루고 있어서 모국어의 음소의 간섭현상으로 일본어의 무성 파열음 p, t, k를 강한 유기를 동반한 유기음으로 발음하나, 실제로 일본어에는 강한 유기음은 적고, 무성음이 어두위치에서 약한 유기음으로 발음된다.

3.1.1. 양순음 /p, b/

ㅍ행의 자음은 주로 한자어를 포함한 외래어와 의성어, 의태어와 mora음소의 다음 위치에서 나타난다. /p/는 어두에서 기성이 약하며, 어중위치의 p'도 한국어의 p'보다는 그 경음의 정도가 약하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어두위치의 무성음이 대부분이므로 어두의 유성음과 어중의 무성음에 대한 특별한 음성적 훈련을 쌓아야 할 것이다. 유성과 무성을 혼동하는 예들을 들어보면,

- (2) bes (ハズ) → p'əs 또는 pəs
baga (ハカ) → p'aga 또는 baka
 bakudan (ハクタン) → p'ak'w daan 으로 발음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어중위치의 유성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되려면 최소대립어의 짝을 예로 들어 훈련함이 좋을 것이다.

3.1.2. 치경음 /t, d/

일본어의 ㄷ행음 /t/는 음성적으로 들 또는 그 이상의 음으로 실현된다. ㄷ, ㄸ, ㅌ의 음가를 한국인은 이것과 유사한 t, t', th(ㄷ, ㄸ, ㅌ)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어의 어두음 t는 한국어의 th음 보다 그 기

성이 약하며, 어종의 t'보다 는 성문 폐쇄의 정도가 상당히 약하다. 특히 어종의 무성음 t를 유성음 d로 발음하는 예를 흔히 본다.

- (3) watakw si (タクシ) → wadagusi, wadakusi 로
 otoosaN (オトオサ) → odoosaN 로
 kata (カ) → kat'a, gada로

3.1.3. 연구 계음 /k, g/

일본어의 어두음 k를 한국어의 k, k', kh의 음가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한국어의 kh(키보다 그 기식을 약하게 하여야 하며, 어종 위치의 k'도 한국어의 k(기)와 k'(끼)의 중간 정도의 경음으로 발음하여야 할 것이다. 어두에 나타나는 가행의 유성음은 한국인 학습자에게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소리 중의 하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에 있어서 어두에 유성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은 무의식적으로 이를 무성음 또는 경음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

- (4) gas (カ^hス) → k'as로
 gikai (キカイ) → kik'ai 또는 gik'ai
 goma (ゴマ) → koma로

즉, 어두의 b, d, g, d₃를 한국어의 b, d, g, d₃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

3.2. ㅈ와 ㅉ음

모음 i와 반자음 j의 앞에서 파찰음화하는 ㅈ는 어두, 어중 또는 모라 음소 /N/, /Q/의 뒤에서 각각 t^h, t^s로 발음되며, 어두에 나타나는 t^s음은 한국어의 t^h(치보다 는 그 기식(aspiration)이 약해야 하고, t^s음은 한국어의 t^s(찌)과 매우 가까운 음가이다.

또한 일본어의 자음 중 ㅈ tsw음은 한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가장 그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형편이어서 정확한 발음지도가 불가능한 정도이다. 즉, 한국인은 ts', s' 또는 tʰ로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선 혀를 t의 발음과 같이 하고 t의 파열이 이루어지기 전 s의 무성마찰음을 내면 될 것이다. ㅈ도 어두 위치에서는 tʰ어중어나 /N/, /Q/의 뒤에서는 ts'로 경음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인은 tsw를 ts'u 또는 s'u로 오용하는 경우가 많다.

(5) mjtsw (ミツ) → mitʃ'u 또는 mis'u
 tsw kue (ツクエ) → ts'uukue, s'ukue
 kw tʃi (クワ) → kutʃ'i

이 경우도 tsw ki, sw ki 등과 같이 최소 대립어를 활용하여 혼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h/음소

/ha, he, ho/의 h음은 성문마찰음으로서 무성자음 f, s의 경우보다 성문의 열리는 정도가 좁다.

hi, hu의 자음은 성도에 있어서 마찰음으로 hi, ɸ의 자음은 독일어의 ɸ보다 약간 더 좁이다. 한편 /hu/, ɸ는 양손마찰음으로 발음하게 된다. /h/음소의 변이음 h, ɸ, ɸ를 한국인은 다같은 음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즉 ha, he, ho는 a, e, o를 발음하기 전 날숨을 내뿜, 마치 한국인이 추위를 느끼고 손을 붙 때 "하하!", "호호!"와 같은 느낌으로 발음하면 될 것이다. ɸ음은 모음 i를 발음할 때보다 혀의 위치를 좀 더 높이면 i와 j와 결합하여 ɸi, ɸj로 난다. 마찰이 약하게 발음되면 i로 들리는 수가 있고 ʃ와 그 나는 혀의 위치가 매우 가까우므로 ʃi와의

구별이 어렵다. o음은 u 모음을 낼 때와 같이 혀의 위치를 잡고 양입술을 오므렸다가 날숨을 불어내는 무성마찰음이다. 일본어의 ɸ행음은 h: b:p의 청음, 탁음, 반탁음의 삼본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ɸ행음은 유성 양손 파열음이고 ɸ'행음은 무성 양손 파열음이다. 한국인은 /h/ 음소가 어중에 나타날때(뿔 째음절에서) 이를 약화시켜 발음하나, 이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각 음절마다 강세와 길이를 주는 것이 효과적인 음성 훈련 방법이다.

(6) kōhi (コヒ-) → kōhi 로 오용하나 이를 ahahaha icicici, uooo, ehehehe, ohohoho 로 연습하여 그 약화현상을 고정할 수 있다. 표기에 있어서도 일본어는 ɸ, ɸ', ɸ'' 등 f음과 ph음을 모두 ɸ'행음으로 표기하나, 한국어에 있어서는 (H)과 (h)으로 나뉘고 있어서 외래어로 표기된 일본어의 해독과 표기에 문제점이 있다.

4. 음절(박)의 문제

앞에서 지적한 모음과 자음에 관한 문제점 외에도 "박"(hakw)이 음성교육상의 중요한 문제이다. 일본어의 자연스러움, 청취등, 음절에 있어서 박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중 mora 음소인 /N/과 /Q/는 한 음절을 이루고 있다. 일본어의 음절구조인 개음절과 한국어의 뻘음절 문제, 일본어의 액센트는 고저액센트이면서 한국어에서보다 액센트의 역할이 크고 방언에 따르는 차이도 있어서 이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학습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모라"를 이해하고, 이 모라를 중심으로 "박"을 음절의 단위로 해야 할 것이다. 학습의 초기단계에서 음성의 기본적인 성격, 음운적 식별에 관한 훈련을 소홀히 하면 그런대로 자기류의 발음으로 고정되어 버려, 후에 이를 고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문법, 어휘, 의미 등 음성 분야 이외의 학습사항에 관한 부담으로 음성 교정은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학습의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음성훈련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편 유능한 음성교사는 문제점이 되는 점만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말고 유사성에 대한 점도 지적하여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문 화 청(1971) '일본어와 일본어 교육' -발음 표현편-, 국립국어연구원
구 소.
- 문 화 청(1972) '음성과 음성교육'
- 우 메 다 히로유키, 무라사키 교오코(1980) '일본어의 발음'
- 김 속 자(1983) '일본어 학습자의 음성적 오류에 관한 연구', 상명여
대논문집 제12집.
- 삼성당편(1981) '신명해 국어사전'

(상명여대 일본어교육과 교수)